

기획특집, 동성애

동성애와 의학

인간 섹슈얼리티

전통적으로 인간의 성(sex)이라 하면 남녀 구별, 성행위, 임신, 출산, 양육 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즉 신체적 내지 생물학적 성에 국한하여 말하는 수가 많았다. 남녀간의 사랑은 성보다 인간관계로 보았고, 성관련 문화예술은 사회적 차원에 두었다.

그러나 현대에 인간 섹슈얼리티(human sexuality)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성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즉 사람들이 성적 존재로서 경험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말하며, 생물학적, 성애적(erotic),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영적인 모든 느낌과 행동들을 포함한다. 이처럼 개념이 광범위 한데다, 시간에 따라 변해 왔다고 보며 그래서 정의하기 어렵다.

인간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심은 1940년대 킨제이에 의해 촉발되었다. 대체로 그의 연구는 과학적 연구로서 비윤리적이며 매우 과장되어 있다고 비판된다. 동성애도 킨제이보고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동성애 문제를 논의하려면 우선 인간 섹슈얼리티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인간 성의 생물학적 측면

이는 생식 체계(reproductive system), 인간성반응(human sexual response cycle) 및 성병 등에 관한 것이다.

남녀 성은 수태 당시 X, Y 염색체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후 성장에 따라 순서적으로 일차 성징과 이차 성징이 나타나는데, 이는 후성유전¹⁾ 체계를 따른다.

간성 간성은 선천적 결함으로 한 몸에 남녀의 생식기들이 불완전하게 발달하며 공존해 있는 상태이다. 인구중 소수(약1%)에서 발견된다. 대개 정신적 결함도 동반된다. 젠더 이론에서는 간성을 하나의 정상적 성의 형태로 보고자 하여, 성소수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LGBT 이외 I(intersex)를 추가하여, LGBTI를 말한다. 그러나 간성은 의학적 분류에서 성적 기형(장애)으로 보고 있다.

성욕 자체의 존재 그리고, 남녀간 성행동(vaginal intercourse)에서의 성 생리는 생물학적이며 선천적이다. 즉 유전, 성호르몬, 그리고 뇌 기전²⁾에 의존한다.

인간 성은 정자와 난자의 생산, 임신, 출산, 모유 생산, 육아 등도 포함한다. 이 과정은 일관되게 유전자에 의해 뇌와 호르몬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다.

1) 후성유전: 유전자가 모두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각 유전자가 필요한 시간에, 적절한 세포 내에서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정밀한 제어 시스템을 후성유전이라 함. [편집자주]

2) 기전(機轉): 어떤 일이 일어나는 현상 또는 원인을 의미하는 의학용어. 영어로 mechanism(메커니즘)이라 함. [편집자주]

성과 뇌 시상하부(hypothalamus)가 성기능에 중요하며, 감정과 기억에 관련된 변연계와 연결되고, 성인지와 판단에 관계되는 전두엽과도 연결을 가지고 있다.

동물에서 성에 있어 후각이 중요역할을 한다. 이에 관련된 물질이 페르몬(pheromone)이다. 그러나 인간에서는 성관련 후각이 퇴화하였다.

동물과 인간의 행동에서 쾌락을 야기하는 행동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관장하는 뇌구조가 있다. 이를 보상체계(회로)(reward system (circuitry))라 한다. 성은 쾌락을 야기함으로써 생육 번성을 위한 강력한 보상체계이다. (모든 쾌락 행동에 따르는 중독현상이 성행동에도 나타난다)

인간에게는 동물과 달리 대뇌 피질, 특히 전전두엽(prefrontal lobe)의 발달로 인간성이 나타났으며, 인간사회에 문화가 출현하였다. 당연히 성관련 인간적 행동과 문화도 발달하여, 동물적인 성 행동을 통제한다.

성호르몬 남자 고환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일차 성징을 발달시키고 사춘기 이후에는 이차성징 및 성욕을 발달시킨다. 여자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및 프로게스테론은 여성의 일차 성징을 발달시키고 사춘기 이후에는 이차성징 및 성욕을 발달시킨다.

뇌하수체(pituitary gland)가 시상하부와 연결되어 생식관련 호르몬을 생산하거나 분비한다. 옥시토신(oxytocin)은 "love hormone"으로 출산과 모유생산, 성행위시 분비되며, 이는 인간의 사랑과 케어, 공감 능력 등 대인관계와 관련된다고 한다. 프로락틴은 출산 후 모유 생산에 관계한다. 난포 극호르몬은 난자와 정자 형성에 관련한다. 황체 형성호르몬은 난자 생산과 유리에 관련된다.

전반적으로 이르러 인간에서는 성관련 호르몬에 의한 통제력이 감소하였다. 즉 여성에서 생리주기에 의한 흥분의 주기도 희미해 졌다. 인간은 아무 때나 성행동을 할 수 있다. 한편 현대에 이르러 여러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한 환경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인간의 생식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성행위 생식(생육과 번성) 이외 인간은 쾌락을 위해 성행위를 한다. 동물의 성은 발정기에 따른 기계적(본능적) 행동으로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성을 통해 오르가즘의 기쁨을 즐길 뿐 아니라, 가족의 기쁨, 출산과 양육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누린다.

생식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이 성행위를 하는 이유에는, 신체적 매력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감정적 연결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등등이 있다. 즉 인간은 성을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시킨다. 이 때문에 복잡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행복이 증폭될 수 있지만, 오히려 불행해지기도 한다. (동성애도 이런 비생식적 사회적 맥락을 가진다)

인간의 성 반응 human sexual response 1960년대에 마스터즈(William Masters)와 존슨 (Virginia Johnson)이 선구자적으로 성행위시 생리적 반응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인간은 성교시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주기성 성 반응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즉 흥분기(excitement), 고조기 (plateau), 절정기(orgasm), 및 해소기(resolution)이다. 그들은 남자는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며, 해소기 뒤 잠깐의 불응기가 있다. 그러나 여자는 반응이 느리게 나타나며 연속적으로 여러 번의 절정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성애는 이 질 성교(vaginal intercourse)의 기전을 동성간 성행위에 오용 하는 행동이다)

성관련 질병 성관련 신체질병에는 성병, 기타 성매개 감염(구강성교로 인한 소화기계 감염, 항문성교로 인한 항문 손상과 감염 등), HIV-AIDS, HPV 등이 있다. 이성애자들보다 동성애자들에게 이런 질병의 유병률이 높다.

2. 인간 성의 정신적 측면/감정적 측면

성은 인간에서 감정적·정신적 반응을 야기한다. 심지어 프로이트 같은 학자는 성은 인간성(personality)의 중심 근원이라고 하였다.

신체적 성은 남녀간의 사랑, 신뢰, 돌봄(케어) 등에 관련된 깊은 느낌과 신체적 표현으로 이어진다. (동성에 옹호론이나 젠더이론에서는 개인들 간의 사랑이라 하며 남녀간이라 하지 않는다).

사춘기 때 성적 활동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는 것은 신체적(성호르몬 관련)이면서도 정신적이다.

인간 성에 대한 대표적인 심리학적 이론에는 정신분석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이 있다.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정신분석 이론은 본능이론, 무의식 이론, 자아-이드-초자아 이론, 역동이론, 쾌락원칙, 발달이론, 방어기제 이론, 갈등과 불안 등 노이로제에 대한 정신병리이론 등이 있다. 인간 성에 관련하여서는 정신성발달 이론, 소아성욕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 등이 있다. 프로이트는 관찰에 근거하여 그의 이론을 추론하였는데,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인다. 프로이트는 동성애를 정신성 발달에서의 장애로 보았고, 정신분석으로 치료를 시도하였다. 이후 그의 제자들은 동성애를 노이로제의 하나로 보고 정신분석으로 전환치료를 하였다. (동성에 옹호자들은 Freud가 인간의 양성성을 옹호함으로 동성애를 지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소아성욕설을 기초로 소아애증을 정상적이라 주장한다. 이 모두 오류적 확대 해석이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성도착증은 정상이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소위 "백지 이론" (tabula rasa) 이론에서 출발하였는데, 파블로프(I. Pavlov), 왓슨(J. Watson), 스키너(B. F. Skinner) 등에 의해 발전하였다. 이는 환경이 성욕과 성행동 등 인간 성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이 이론에서 여론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성혁명의 기초의 하나가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인간의 성발달

소아기 성 프로이트가 처음 거론한 것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욕(libido)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아기 성욕은 전성기적 단계(pregenital stage)라 하여, 먹기, 보기, 만지기 등에 대한 일반적 쾌감을 말하며 성인의 성욕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사춘기에 이르러 성호르몬에 의해 이차 성징이 나타나고 고환과 난소가 발달하면 비로소 성기적 쾌락을 경험할 수 있다. 이때를 성기적 단계(genital stage)라 한다. 또한 이때 전성기적 및 성기적 경험이 통합되기 시작하여 전성기적 쾌락은 성기적 성교 때 전회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회로서 성교를 대신하면 "성도착"이라 한다. 예를 들면 관음증은 보는 즐거움으로 오르가즘을 대신하는 것이다.

출생 때부터 이 쾌감(먹기나 대소변 가리기 그리고 부모와의 삼각관계 등)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방식은 부모와의 인간관계 또는 훈육에 의해 학습된다. 이를 정신성 발달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등 갈등이 나타난다.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이 인격발달과 성적 성숙을 이룬다. 특히 출생후 어머니와의 관계(애착관계)가 이후 모든 인간관계의 능력으로 이어진다.

성인의 "성숙한 성" - 사람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다른 인간 능력처럼, 성발달에서도 고착되지 않고 발달하고 성숙해 나간다. 인간이 지향할 바는 "성숙한 성"이다.

정신분석학자 에릭슨(Erik Erikson)은 키제이가 자위나 몽정, 패팅, 동성애, 수간 등 무엇에 의해서라도 정액방출만 되면 그것은 정상이다라는 주장을 한데 대해 반대하였다. 그는 건강한 성은 ① 서로 사랑하고 믿는, ② 일, 생식(procreation), 및 즐거움(recreation)의 주기를 조절하는데 서로 협력하는 ③ 이성 파트너와 ④ 친밀감을 가지고 ⑤ 자아상실의 공포 없이 ⑥ 성기결합을 통해 ⑦ 상호 오르가즘(mutual orgasm)을 공유할 수 있으며, ⑧ 자식을 낳고 협력하여 키우며 만족스러운 성장을 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노인의 성 노인이 되면 성적 흥미와 능력을 잃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인이 된다는 것은

성적 표현과 활동에 관한 욕구와 필요성과 상관없다. 노인부부는 성적 활동이나 표현은 줄어들 수 있어도 친밀^{intimacy}과 사랑^{love}의 경험은 증가한다.

성관련 정신장애

성기능장애^{sexual dysfunctions}와 성장^{sexual disorders}가 있다. 성기능장애는 성욕장애, 절정감 장애, 성교통증, 조루증, 성욕과다(예: 돈관증후군) 등이 있다.

성장애에는 젠더정체성장애(젠더불쾌증과 성전환증), 성도착 장애(관음증, 노출증, 물건 성애, 소아 성애, 수간, 시간, 분노애증, 가학피학증 등) 등등이 있다.

(동성애는 이전에는 성도착 장애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1973년 이래 미국의 정신장애 진단명 목록이나, WHO의 국제질병분류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병적이 아닌 것은 아니다 - 이후에 설명될 것이다. 그러나 젠더정체성 장애는 남았다)

3. 인간 성의 사회적 측면

이는 사회와 섹슈얼리티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문화, 예술, 문학, 미디어, 정치, 법, 철학, 도덕, 윤리, 종교 등과 영향을 주고 받는다.

성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에 의해 변화된다. 개인의 성은 정상성^{normative},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환경적 특징들에 의해 조절된다. 성도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과 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준다.

현대에 이르러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진보적 사회에 힘입어 성 혁명^{sex revolution}, 성개방^{Free Sex}, 동성애와 동성혼, 페미니즘,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정치^{Sex Politics} 등 사회적 이슈들을 발전시켰다.

성적 관계 맺음 성과 관련하여 남녀는 성적으로 맺어지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 중심은 결혼이다. 결혼함으로써 자식을 낳아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형성한다.

성적 관계를 맺는 행태도, 구애, 로맨스, 데이트, 헤어짐, 짝짓기^{mating}, 일회성 섹스^{casual sex}, 약혼과 결혼, 별거, 결혼무효, 이혼, 등등이 있다.

관계 맺음에 관련되는 감정에는 호감^{affinity}, 친밀, 사랑, 애착, 질투, 집착^{Limerence}, 프라토닉 러브, 무조건적 사랑, 열정, 등등의 형태들이 있다.

결혼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문화권에 따라 일부 일처제, 다부일처제, 다부다처제, 일부다처제, 공개적 결혼^{open marriage}, 등등 다양하였으나, 근대에 이르면서 대부분의 결혼방식은 일부일처제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가족제도가 해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혼이 아니더라도 남녀가 결합하는 파트너쉽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연인관계, 일회성^{casual}, 친구, 동거인, 첩, 정부(情婦)와 정부(情夫), 창부, 다자연애^{polyamory}, 유의한 타자^{significant other}, 영혼의 동반자^{soul mate}, 로맨틱한 우정 ...등등 다양하다.

성적 관계맺음에 관련된 사회경제적 이슈에는 신부값, 신부의 혼인지참금, 승격혼³⁾, 미망인이 받는 상속, 등 결혼제도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현대 사회는 매춘과 포르노가 상업화되어, 통제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사회에서는 전통적 일부일처제와 가족제도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 밖의 관계가 증가하는 만큼 전통 가족제도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투 운동 (#MeToo movement) - 최근 사회의 성적 관계맺음에 대한 침예한 현상을 대변한다. 이는 남녀평등문제, 성과 폭력 문제, 페미니즘, SNS의 발달 등을 반영한다.

성문화 현대의 성문화는 프리섹스로 대변된다. 프리섹스는 1960년대 소위 성혁명을 거치면서 전통적 성윤리에서 벗어나 20세기 후반에 꽃을 피웠다. 현재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옹호운동, 젠더주류화 운동, 일회성(casual) 섹스, 포르노, 그리고 심지어 낙태, 성병, 성폭력 등의 증가현상도 성혁명 현상과 일치한다. 이는 소위 “위험한 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윤리적 타락이다. 보건적 측면이나 사회적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목살되고 있다. 그러나 안정된 결혼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준다. (치매도 예방한다는 연구도 있다.)

그 대신 성적 자기결정권이 새로운 윤리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소아기 성욕설을 근거로 소아청소년에게 성적 자유를 주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적 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에게, 무책임하고 위험한 성행동을 조장하는 것이다.

성윤리 파탄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인간관계를 파탄시킬 뿐 아니라, 성병, 성폭력, 생식기능 쇠퇴 등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종교 성의 종교적(영성) 측면은 남녀간 영적 연결 connectedness에 관련한 것이다.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현대사회의 성문화는 인간의 “의지”(will)의 힘과 “영성”(spirituality)을 무시하고 있다.

주요 전통적 종교에서는 결혼 내에서만 성적 쾌락을 즐기라고 권한다. 또한 종교적 내지 영적 이유에서 금욕(성의 기피 또는 억제)을 권하기도 한다. 수도하는 종교인들이나 성직자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다. 동성애에 관련하여서도 전환을 시도하던지 동성애를 중단할 수 없다면 금욕하라고 권한다.

3)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을 뜻함. [편집자주]

4. 기타 성적 이슈들

성지남 Sexual Orientation, 성적 지향 Sexual Preference, 성적 취향 등으로도 불린다. 성행위 여부, 즉 성적 끌림이 성지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동성간의 친함이나 우정은 동성애가 아니다. 남자간 동성애를 게이 또는 MSM(men who have sex with men)이라 하고, 여자간 동성애를 레스비언 또는 WSW라고도 한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들이 많다.

성정체성과 젠더 생물학적으로는 성sex은 남녀 양성 두 가지이다.

생물학적 성에 대해 정신사회적 성이라는 의미의 젠더gender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의 남녀별 속성을 의미한다. 즉 남성다움masculinity과 여성다움femininity이다. 정상적으로 남자는 남자의 신체적 성정체성과 자신이 남성적이라는 젠더정체성을 가진다. 여자는 여자의 신체적 성정체성과 자신이 여성적이라는 젠더정체성을 가진다. 즉, 성정체성과 젠더정체성은 일치하면 사회문화적으로 적응된 정상적 상태이다. 즉 성과 젠더는 일치하며, 이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자신이 자신의 성(젠더)을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따라 개인적으로 정하자는 사고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즉 나는 몸은 남자이나 내 마음은 여성이라고 생각하거나 여성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젠더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즉, 성정체성은 남자이나 젠더정체성은 여자라는 것이다)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정체성과 다른 젠더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주장을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정당화한다. 이는 동성애 옹호 주장과 더불어 현대 사회의 인본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트랜스젠더라 한다(의학적으로는 젠더불쾌증이다.). 이 극단적인 모습이 성전환증으로, 다른 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술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요구한다.

이렇게 반대의 젠더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입맛에 따라 남성도 여성도 아닌 다양한 젠더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나의 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중간 어디쯤이다, 또는 아무 젠더도 없다, 젠더를 모른다, 다수 젠더들을 가졌다, 등등, 지금까지 약 50여개의 젠더 정체성이 제안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트랜스젠더라 하며 사회가 자신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인을 주장한다.

젠더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이는 양성평등을 성취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모든 성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자는 운동으로 판명되고 있다. 성소수자에는 동성애자, 모든 트랜스젠더들, 간성, 무성애자, 등을 포함한다. 극단적 여성주의(Radical feminism)와 궤를 같이 한다. 이 주장은 엄연한 생물학적 성을 무시하는 것이 약점이다.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질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인권운동 때문이며 순수하게 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이 병명목록에서 빠져도 여러 행동문제나 심신의 합병증이 많아 병적이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적 운동에 따라 올해 WHO의 국제질병분류 제11판(ICD-11)의 최종 초안(draft)에서는 젠더정체성장애를 젠더불일치로 이름을 바꾸고 정신장애 카테고리에서 제외하였다.

젠더퀴어 자신의 젠더에 대해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비 통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 이성 옷입기, 이성처럼 화장하기 등을 포함하여,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심지어 성도착자까지 포함한다. 이들이 모여 자신들의 색다른 행태를 과시하는 것을 퀴어축제라 부른다.

성교육 인류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식을 양육하는 부모-가족-사회가 후세를 어떻게 교육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녀들이 또는 학생들이 성에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가, 즉 인간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궁극적 교육의 문제이다. 성적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성교육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도 그러하고, 사회나 대중매체는 프리섹스, 불륜, 포르노를 상업화하고 있다. 특히 부모들은 일찌감치 가정적 훈육을 아예 그만둔 것처럼 보인다. 더 늦기 전에 각성이 필요하다.



민성길 교수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5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여 '국제신경정신약물학회 선구자상'을 받았다.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초대 이사장, 서울 은평병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회장이다.

